

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1984 / 조지오웰

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

어릴 적 읽었었는데, 다시한번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나서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읽게 되었습니다.

**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
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

싸구려 술과 커피에서는 시큼한 무언가가 섞인 냄새가 났다. 스투에서는 쇠 맛이 났고 더러운 옷에서는 잡다한 냄새가 섞인 불쾌한 악취가 났다. 마땅한 권리를 그동안 빼앗겨 왔다는 생각에 위장과 피부는 일종의 저항이란 것을 했다 (중략) 사람들이 모든 것이 달랐던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는데도 왜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일까?

어떤 경우든 부적절한 표정을 지으면 그 자체가 처벌 가능한 범죄가 되었다. 심지어 이 범죄를 지칭하는 '표정죄' 라는 신어도 있었다.

윈스턴은 그녀가 4년 전에 오세아니아는 동아시아와 전쟁 중 이었고 유라시아와는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걸 우연히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 할 수 없는게 하나 있어요. 그들은 당신이 무엇이든 말하게 할 수 있어요. 뭐든지요. 하지만 믿게 할 수는 없어요. 당신 마음속예까지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중사고의 원칙에 따라 핵심 당원 수뇌부들이 이를 인정하는 동시에 인정하지

않게도 하지만, 현대 전쟁의 기본적인 목적은 국민의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지 않으면서 기계제품들을 완전히 소모하는데 있다.

과거의 어떤 정권이든 시민들을 끊임없이 감시할 힘이 없는 탓도 있었다. 하지만 인쇄술의 발달로 보다 쉽게 여론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고 영화와 라디오로 인해 그 과정을 수행하는 일이 한층 더 쉬워졌다. (중략) 모든 국민이 정부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게끔 할 뿐 아니라 의견까지 완전히 통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처음으로 열린 것이다.

“아니란 말이네! 자백을 받아 내기 위해서도, 벌을 주기 위해서도 아니야, 왜 자네를 이리 데려왔는지 말해줄까? 치료하기 위해서야! 자네를 온전한 정신을 지닌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라고! (후략)”

“윈스턴, 어떻게 하면 타인에게 자기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겠나?”

“타인을 괴롭히면서 행사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거야, 타인을 괴롭혀야 하는 거라고. 복종으로는 충분하지 않네. 괴롭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권력자의 뜻에 복종한다고 확신할 수 있겠는가? 권력은 고통과 모욕을 주는 가운데 존재하는 걸세. 그리고 권력은 인간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서 권력자가 선택한 새로운 형태로 다시 뜯어 맞추는 거라네.”

“그런 일이 닥치면 진심으로 원하게 돼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는 정말로 원했다. 단지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되기를 바랐다. 자신의 고통이 그녀에게 옮겨 가기를 바랐던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되었다. 투쟁은 드디어 끝이 났다. 그는 자신과의 투쟁에서 승리했다. 그는 빅브라더를 사랑했다.

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

어릴 적에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나이먹어서 보니 한 구절 한 구절이 절절하게 다가오는 책이었습니다.

재미있었던 것은 생각보다 연애 소설 같은 느낌이 많았다는 점.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에 빠진 후 헤어지는 것을 다른 면에서 다룬 것 같아서 흥미로웠습니다.